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요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요리를 직업으로 택한 이후 가장 재미있는 주제의 제안이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어린이와 미식회를 진행하여 동영상 채널에 올리고 싶다는 것이다.

어린이와의 미식회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우선 어린이들의 연령대가 궁금했다. 어린이들은 24개월, 6세, 7세, 9세의 남-여라고 한다. 어린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다.

그동안 세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어 왔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신세대와 구세대로 양분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매우 다양해졌다. 나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들은 베이비붐 세대라 한다. 나는 386 세대이고 아래 후배들은 X세대다. IMF와 월드컵을 겪어낸 세대는 Y세대 Z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Z세대까지 다 써먹었으니 더 이상 세대를 구분할 글자도 없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대상이 채 열 살도 안 된 어린이

세대를 뛰어 넘는 공감

라고 하니,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고심이 깊어졌다. 메뉴는 준비하는 내내 24개월 어린이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내가 하는 음식은 중국음식인데 어린이들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음식을 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요리의 가짓수는 열 가지로 정했다. 육지에서 구할 것과 바닷재료 등으로 골고루 선택하고, 각각의 재료에 사용할 양념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메뉴를 만들고 수정해 나갔다. 매일 하는 요리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잘 먹게 하려면 신경을 쓰고 또 써야 했다. 한데 진짜 걱정은 그 다음에 또 생겼다. 어린이들과 나의 나이가 50살이 넘는 차이가 난다.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뜬눈으로 지낸 것이다.

미식회 당일 어린이들은 힘찬 소리와 함께 계단을 올라왔다. 막상 만나 본 어린이들은 의뎡했고 밝았다. 24개월 된 어린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러기에 바빴다.

새우를 튀겨서 케첩에 조리하는 요리를 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조금 넣은 중국의 두반장은 “쫄 매운데 요”라면서 아이들이 넣은 양념을 바로 읽어 냈다. 매울까봐 케첩만 넣었다니 “단순한 케첩 맛만 나는데요”라면서 콧집이 찡뚱했다. 어린이들은 ‘절대 미각’을 갖고 태어난 듯 보였다. 짜장면을 먹을 때는 오늘 짜장면 먹었다고 광고를 하는 것처럼은 얼굴이 모두 짜장면으로 물들었다. 볶음밥은 한 그릇 더 달라며 굵깨기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45센티미터 잉어로 만든 탕수생선 앞

에서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중 아홉 살짜리 한 어린이는 꿈이 래퍼였다. 함께 노래할까? 무슨 노래를 하고 싶어? 했더니 바로 영국 그룹 퀸의 노래를 불렀다. 아홉 살짜리 어린이가 퀸의 노래를 하다니. 나는 서랍에서 잡지와 있던 미니 마이크도 꺼내두고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노래방도 가동했다. 미식회로 시작했는데 음악회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우리는 노래 하나로 즐겨워하며 50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만끽했다.

홍 많은 한국인인 우리는 식사하면서도 노랫가락 한 소절이라도 부르면 더 행복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미식회로 시작한 우리들의 시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옛날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나도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옛날이야기를 즐겨 한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즐겁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살짝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 간혹 세대 간 대화가 막히기도 한다. 과도하게 줄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척할 때가 있지만, 무슨 뜻이냐고 물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시중에는 신세대의 밀레니얼과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나와 있는데, 진정한 소통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일 아닐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 보면 어떨까 한다.

종교칼럼

민음의 세계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종교를 믿어 왔을까? 조용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어쩌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닐까?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성은 고귀하고 능력은 무한하고 행동은 천사와 같고 이해는 신과 같다.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햄릿’ (Hamlet)을 통해 말한 ‘인간 예찬’이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다.

무엇이 이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인간의 힘은 무엇일까. 인간은 신체적으로 많은 약점이 있다. 먹이를 얻기 위한 사나운 무기도 없고 추위를 막기 위한 털도 없으며 하늘을 나는 날개도 없다. 파스 같은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의 갈대다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란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비참한 인간이 가장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

는 점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을 바탕으로 놓은 이상과 부족한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이다. 인간은 부족을 자각하면서 이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지혜를 쌓아 왔다. 해를 삼기기도 하고 달이나 별을 삼기기도 하였다. 때로는 큰 나무가 거대한 돌 바위를 삼기기도 했다. 이를 ‘토템 미즘’ (totemism)이라고 한다.

사람의 지혜가 열리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수께끼들이 과학에 의해 증명되기도 했고 철학적인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거기에 따라 신앙의 형태도 바뀌어 갔다. 그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인간이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들만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현상 이면의 질서와 법칙, 변화 속에 이어져가는 영원한 신비 앞에 인간은 머리 숙이는 법을 알아야 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예술, 모든 과학의 원천이다.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공경하고 두려운 생각에 감동되어 경이에 휩쓸리게 도취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치한 능력으로써는 거의 일부분의 삶도 이해할 수 없다”고 술회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와 존재 이면의 명확한 진리에 대하여 종교적 경건성을

가지고 살았다. 종교는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자.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중에는 아직도 자연 불을 숭배하는 원시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고 성인들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종교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가 서양의 기독교, 마호메트교, 동양에서는 불교와 유교이다. 동양과 서양의 종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진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밝히고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르치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우치고 있다. ‘종교’ (Religion)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을 다시 결합시키는 길이라고 한다. 동양에서는 ‘종교’ (宗敎)란 사람이 진리의 뜻을 알아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큰 가르침으로 보았다. 유교에서 사람이 하늘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하늘과 하나가 되는 길을 목표로 했고 도교에서도 자연에 돌아감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무력함을 자각하고 절대자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사님께서도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다가 우주의 진리를 깨치시고, 이 우주의 진리를 따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것이다. 종교는 하잘 것 없는 인생이 우주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와 하나 되려 하는 경건한 노력 속에서 체험되는 기쁨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탄(歎)한다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야 할 북한 동포들이 90년대의 흑독했던 고난의 행군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우리나라도 힘들어 아우성인데 “북한은 오랜 경제적 낙후하다가 유엔의 봉쇄와 코로나로 국경까지 통제되어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까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니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아픔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 근래에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나 북미 정상의 회담으로 다소의 희망을 가졌지만 바이든의 취임이후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냉전 상태로 회귀되는 상황이다.

상고해 보면 통일신라 이후로 1000여 년 이상 이어온 통일 국가가 지금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70여 년 이상을 휴전 상태에 있는 분단된 나라로 남아 있다. 구한말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먼저 근대화된 일본의 희생물이 되어 식민지로 전락하고,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민족의 분할과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세계 4대 강국의 틈에 끼여 외세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고 행복한 단일 민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부 청소년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니 걱정이 된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바탕 아래 인간 존중, 철저한 법과 규칙의 준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정립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언벌칭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온갖 위험과 고초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출해 온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민들에게 주변의 국민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과연 진정으로 다정하고 격의 없이 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곁에 있는 소수의 북한 이탈 주민조차 회합과 상생으로 포용하지 못하면서, 거대 담론으로 통일만 부르짖는다면 그야말로 연목어(緣木求魚)일 것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다. 온 세상에 아름답고 희망찬 봄의 물결은 도도히 밀려오고 있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의 힘든 삶과 북녘의 동포들이 아직도 생활고 속에서 흑탄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찌 홀로 봄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겠는가?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찾아와 모두가 손잡고 봄날을 구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社說

분노한 민심 정부 여당의 무능 심판했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게 각각 18%-28% 차이로 완패한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패한 것은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승리했고, 불과 1년 전 총선에서는 180석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민심 이반의 원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성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지

도부 총사퇴 입장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패인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자인했다. 졸권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민심 이반을 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이번 재보선은 인물이나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선거였다. 집값 폭등과 LH 직권 투기 등 부동산 문제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위선에 표심이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무능과 위선 및 오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자 민심의 경고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깊이 새기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결코 자신들이 잘해서 이룬 승리가 아닌 만큼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택 리모델링 사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전통 한옥 등 주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시공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고, 이에 따라 간간히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도 그렇다. 광주시 동구청은 주택 리모델링을 맡은 공사 업체가 무자격자인 데다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 안전과 직결되는 대수선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했지만 업체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물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나 경미한 수선쯤으로 여기는 탓에 주택 개보수 공사 관련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건축물 소유주는 물론 시공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유자격자보다 무자격자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대수선은 최소한 신고 의무라도 있지만 소규모 주택·상가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 동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 한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대수선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법적 보완 외에도 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시민들도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유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정원이 지난 5일 빛바랜 5·18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일반 자동차처럼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륜형 장갑차’다. 이는 무한궤도를 장착한 ‘궤도형’보다 도시 지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사진을 보면 차도 한가운데 장갑차를 중심으로 공수부대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인도에는 10여 명의 시민들이 군인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도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가 ‘살인 진압’에 나서기 직전

부고 3학년)은 이후 다섯 번의 큰 수술을 받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건졌다.

총을 맞은 학생은 살아났지만 총을 쓴 군인(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은 5일 뒤 같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처참하게 숨졌다. 그가 소속된 11여단(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선봉에 서기도 했다)은 24일 주남마을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이동 중, 송암골단 근처 야산에 매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와 전투를 벌였다. 서로 적으로 오인해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장갑차가 파괴되

고 며칠 전 학생에게 총을 쏜 이장교도 결국 숨지고 만 것이다.

차륜형 장갑차

‘5월 광주’에 차륜형 장갑차가 몇 대나 투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장갑차가 지나간 곳곳에서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 항쟁 이틀째인 19일 오후 4시 50분경,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장갑차의 한쪽 바퀴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 탈출해 온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민들에게 주변의 국민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과연 진정으로 다정하고 격의 없이 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이번 차륜형 장갑차 사진 공개로 “80년 5월 광주에서 ‘궤도형 장갑차’만 운용했다”는 계엄군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계엄군은 특히 장갑차가 시민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를 발미로 코브라헬기를 출동시켜 광주 상공에서 발컨포 사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41년 만에야 겨우 5·18 진실의 퍼즐 한 조각을 찾아냈다. 이는 비록 사진 한 장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고



김용하
전 광주시인협회회장
광주가정법원 국선변호보조인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온통 하얗다. 온 하늘이 빗방울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생존 자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전전긍긍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의 조류에 떠밀려 봄의 나무에 도착한 것을 망각하였다. 주위를 돌아보니 온통 꽃의 물결이다. 길옆에는 노오란 민들레가 한창이고, 제비꽃이며,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제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과 향기를 뿜어 낸다. 봄은 화약과 욕망을 버무리고, 봄비는 잠든 뿌리를 깨워 낸다’는 티에스 엘리엇의 시구처럼 봄이 오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은 새싹처럼 피어나고 꽃을 피워 내는 것이다.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봄날도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것일까? 무량산무량산(無量山無量山)이란 말이 있다.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거나 향유하려면 물질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접한 북한의 소식에 더욱 가슴이 먹먹하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